

정현 투어 첫 우승...세계 테니스 차세대 '넘버 원'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54위)이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에서 우승한 뒤 두 팔을 활짝 펴고 기뻐하고 있다. 정현은 이날 결승에서 안드레이 루블레프(37위·러시아)를 3-1(3:5)-4-3(2)-4-2 4-2로 제압하고 처음으로 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정현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우승



정현
●출생 1996년 5월 19일(경기수원)
●신체 183cm/80kg
●소속 삼성증권
●주요 경력 및 수상
2011 제주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복식 우승
오렌지보울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16세부 단식 우승
2012 인도국제주니어1차대회 단식 우승
오렌지보울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단식 우승
2013 ITF서울남자주니어2차 대회 단식 2위
ITF남자주니어대회 단식 2위
윌링턴주니어테니스대회 단식 준우승
캐나다오픈주니어테니스대회 복식 2위
2014 제17회 인천아시아인게임 복식 금메달
2015 남자프로테니스(ATP) 서베너 챔피언대회 우승
ATP 부산오픈 챌린저대회 우승
ATP 르코프 서울오픈 챌린저 2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테니스 남자 단식 금메달·남자복식 은메달·남자단체전 금메달
2017 남자프로테니스(ATP)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우승(한국 선수로 14년 10개월 만)

남자프로테니스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우승
21세 이하 랭킹 8명 참여...상위 랭킹 줄줄이 제압
난시 극복하려 시작...이행택 이어 한국 14년만에

“한국 테니스의 유망주”로 불렸던 정현(21·삼성증권 후원)이 이제 세계 무대의 ‘차세대 넘버 원’으로 주목받게 됐다. 정현은 1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끝난 남자프로테니스(ATP)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정상에 오르며 21세 이하 젊은 선수들 가운데 최강자로 우뚝 섰다. 이 대회는 21세 이하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높은 8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룬 무대였다. 세계 랭킹 54위인 정현은 출전 선수 8명 가운데 순위로는 다섯 번째에 불과했지만 상위 랭커들을 줄줄이 연파하며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톱 시드를 받은 안드레이 루블레프(37위·러시아)와는 조별리그와 결승전에

서 두 차례 만나 모두 승리를 따내면서 실력의 우위를 입증했다. ATP 투어가 올해 이 대회를 창설한 것은 현재 21세 이하 선수들 가운데 앞으로 톱 랭커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계 남자 테니스는 2000년대부터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와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 노바크 조코비치(12위·세르비아), 앤디 머리(16위·영국)가 메이저 대회 정상에 주고받는 ‘빅(Big) 4’ 시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최연장자인 페더러는 올해 36세, ‘막내’들이 조코비치와 머리로 30세로 선수 생활의 전성기를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선수’들만의 경연장이 이

대회가 신설됐다. 정현은 이 대회를 앞두고는 우승 후보로 부각되지 못했지만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사포발로프를 꺾었고, 결승에서 루블레프마저 따돌리며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로는 2003년 1월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이행택(41) 이후 14년 10개월 만에 투어 대회 정상에 오른 정현은 1996년 생으로 수원 영화초등학교와 수원복중, 수원 삼일공고를 거쳤다. 한국체대에 재학 중인 정현은 아버지(정석진 씨)가 삼일공고 테니스부 감독을 지냈고, 형 정홍(24)은 현대해상에서 선수로 활약 중인 ‘테니스 가족’의 막내다. 정현은 어릴 때부터 고도근시와 난시로 고생했고 시력 교정을 위해 초록색을 많이 보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테니스를 시작했다. 지금도 투어에서 드물게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쓰고 코트에 나서고 있는 정현은 경기가 중단될 때마다 안경을 벗고 땀을 닦아내는 모습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도 했다. 그는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 주니어 대회인 에다 허 인터내셔널 12세부에서 2008년 우승했고, 2011년에는 오렌지 볼 16세부 정상에 올랐다. 모두 한국 선수 최초였다. 2013년 월드컵 주니어 남자단식 준우승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정현은 2014년 인천아시아인게임 남자복식,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단식 금메달도 목에 걸었다. 개인 최고 랭킹은 올해 9월에 기록한 44위, 메이저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은 올해 프랑스오픈 3회전(32강) 진출이다. 이 부문 국내 기록인 이행택의 36위와 메이저 대회 16강(4회전) 진출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우승 상금 39만 달러(약 4억3000만원)를 받은 정현은 올해에만 상금 100만 달러를 넘겨(104만 510달러·11억6000만원) 벌었다. /연합뉴스

이정은 KLPGA 4관왕
평균타수 1위·대상·상금·다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대세’ 이정은(21)이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4관왕에 올랐다. 이정은은 12일 KLPGA투어 시즌 최종전 ADT캡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2오버파 74타를 적어내 3라운드 합계 1인타 215타로 시즌을 마쳤다. 이정은은 평균타수 1위(69.79타)를 지켜 대상, 상금왕, 다승왕에 이어 개인 타이틀 싹쓸이를 완성했다. KLPGA투어에서 4개 개인 타이틀을 석권한 이번이 8번째다. 지난해 신인왕 이정은은 올해 4승을 올리며 4관왕을 이뤘다. /연합뉴스

“나 건강한테...야구 농기엔 아깝다”
방출 KIA 김광수 새 팀 찾기 나서

타이거즈 마운드의 디미돌이 됐던 김광수(사진)가 새로운 팀을 찾는다. 김광수는 최근 KIA 구단으로부터 내년 시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5년 5월 한화와의 3대 4 트레이드로 광주로 왔던 ‘베터랑’ 김광수는 세 시즌을 끝으로 타이거즈 유니폼을 벗게 됐다. 트레이드 당시 기대감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적 첫해 41경기에서 43.2이닝을 소화하며 4승 4패 9홀드를 올린 김광수는 지난해에도 54경기에 나와 52.1이닝을 책임지면서 2승 6패 14홀드 7세이브를 기록했다. “KIA 불펜에 경험을 더하고 싶다.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던 각오처럼 김광수는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된 KIA 불펜에서 베테랑의 힘을 보여줬다. 김기태 감독 부임 후 2년간 불펜의 주축 선수로 역할을 하면서 올 시즌 우승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2000년 LG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2011년 한화를 거쳐 새로운 야구 인생을 연 그는 나이 차가 많은 KIA 투수진에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형’같은 선배로 후배들을 아우르는 역할도 했다. 올 시즌 불펜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후배들 좋은 투수들이다. 격려의 이야기도 많이 써주라”고 취재진에 부탁하던 든든한 선배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수창초, 박찬호기 전국초등야구 우승
서울 사당초 10-2로 꺾어

수창초 선수들이 광주시립야구장에서 열린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대회 우승을 확정짓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야구협회 제공

광주 수창초가 ‘제17회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수창초는 최근 광주 시립야구장에서 열린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대회 결승에서 서울 사당초를 10-2로 꺾고 우승팀이 됐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 지역 예선에서 우승을 차지한 서림초와 준우승팀 수창초 등 32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다했다. 수창초는 대회 첫째 날 32장에서 서울

콜롬비아와의 평가전 골장면
경기 결과 한국 2 : 1 콜롬비아
선제골 (전반 10분)
2 손흥민 수비수들 동진해 공을 한 번 돌린 뒤 수비수 다리사이로 슈팅
1 이근호 오른쪽 측면에서 패스

깨어난 신태용호 세트피스 완성해 화룡점정?
강호 콜롬비아 2-1 제압
내일 세르비아와 평가전

세트피스는 상대 팀의 방해를 최대한 덜 받으면서 득점을 따내는 좋은 기회다. 이 때문에 현대 축구에서는 세트피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반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막아내는 것도 승리의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한국 축구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을 치르면서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세트피스 수비에서 무너지면서 실점하는 상황이 더 많이 벌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14일 ‘동유럽 강호’ 세르비아(국제축구연맹 랭킹 38위)와 평가전을 앞두고 있는 신태용호의 ‘세트피스 완성’이 관련 포인트로 떠올랐다. 한국 축구는 세르비아와 역대 전적에서 1승1패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6년 5개월 만에 재대결하는 세르비아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유럽예선 D조에서 조 1위(6승3무1패)로 러시아행 티켓을 따냈다. 아시아 예선에서 힘겹게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짓는 신태용호로서는 본선 무대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유럽 팀인 만큼 실전 경험을 쌓기에 좋은 기회다. 무엇보다 신태용호는 지난 10월 FIFA 랭킹 13위인 콜롬비아를 상대로 2-1 승리를 따내면서 분위기가 상승한 상태다. 대표팀에서 유독 부진했던 손흥민이 전반 11분 천공 같은 선제골을 기록하며 포효했고, 1-0으로 앞선 후반 16분에는 한 박자 빠른 오른발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뽑았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경기를 통해 A매치 2연전에 도전한다. 콜롬비아전에서 오랜만에 다득점과 함께 강한 압박과 스피드가 되살아난 신태용호는 세트피스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게 이번 세르비아전의 목표다. 한국 축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직접 득점에 성공한 것은 2016년 6월 5일 체코 프라하에서 치러진 체코와 평가전이 마지막이다. 올리 슈틸리케 전 감독이 이끌었던 대표팀은 당시 FIFA 랭킹 30위였던 체코를 상대로 2-1로 ‘깜짝’ 승리를 따냈다. 한국은 전반 27분 석현준(트루아)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유도한 프리킥을 윤빛가람(제주)이 기막힌 오른발 슈팅으로 ‘거미손’ 페르르 체흐(아스널)가 지킨 체코의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하지만 이후 한국 축구는 세트피스 득점에 좀처럼 성공하지 못했다. 신태용호는 10일 콜롬비아전에서 여러 차례 세트피스(코너킥 및 프리킥) 기회를 맞았지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2-0으로 앞서가다 콜롬비아의 프리킥에 이은 헤딩 추격골을 내주면서 세트피스 수비에 문 제점만 노출했다. 출범 이후 4경기 연속 무승(2무2패)의 부진을 거듭했던 신태용호는 공격과 수비의 조화가 살아난 만큼 이번 세르비아전에서는 세트피스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게 과제로 떠올랐다. /연합뉴스